

Social Pharmacy Perspectives

대한민국 약사, 우리들의 공공심야약국

저자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학정보원 학술위원

개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약물 검토 및 중재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도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시작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공심야약국의 시작과 입법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현황과 공공심야약국 서비스를 통해 약사 직능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공심야약국, 약사 전문성, 약물 검토와 중재, 약사 직능의 가치

공공심야약국과 약사 서비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사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중재하는 것과 같은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사가 약국에서 제공하는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는 약사 직능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서비스이고, 약사의 전문영역에서 출발하는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이다. 즉, 단순한 약물 지식의 전달이 아닌 약물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실현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약국의 타이레놀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은 상품 자체의 물성으로서는 차이가 없지만,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 제공 유무라는 가치의 차이가 현격하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매뉴얼에서 공공심야약국의 핵심 서비스인 약물 사용 검토와 중재를 다음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로써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공공심야약국 업무 프로세스
(출처. 공공심야약국 약물 검토 매뉴얼. 대한약사회)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에서 행하는 약물 검토와 중재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처방전 조제 및 셀프케어를 위해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 관련 상담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취약 시간대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가 있음.
- 공공심야약국에서 시행되는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사용 검토 및 중재서비스는 약화사고 예방 및 약물오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 및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약사는 약물사용 검토를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약물 선택을 도울 수 있으며, 환자에게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관련문제(drug related problems, DRP)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문제 발생 예방이 필요함.

이에 덧붙여 안전한 약물 사용 검토를 위해 정보수집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약물관련문제(DRP)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환자 정보 수집과정이 필요하며, 환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환자에게 수집된 정보는 약물사용 검토 및 중재와 관련한 정보여야 하며,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수집되거나 가족, 간병인, 의료인 등 환자의 주변인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음.

이러한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는 일방적인 전문지식의 전달이 아니며, 약물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약사가 가지는 전문지식에 기반한 검토와 시간 및 장소의 상황 여건을 중재하여 약물 이용자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약사 서비스이다. 이와 같이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의 전문지식과 약물 이용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모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요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시대의 발전에 따른 약사의 역할 변화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의 시작과 관련된 사회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공심야약국의 시작과 입법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의 현황과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통해 약사 직능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변화와 약국의 모습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약국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3자 지급 형태의 제도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가격 대비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건강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특성과 서비스 이용자와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3자 지급제도가 더해져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약국 이용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작될 시점에 약국을 통해 이용하는 의약품이 약 80%를 점유하던 것이 2000년 의약분업 때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약국을 통한 의약품 이용이 전체의 약 20%에 이르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약 10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나타난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이용 행태의 변화는 약사 직능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변화는 약사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변화를 요구하였다. 의약분업 이전의 약국에서 행해진 약사의 자유로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약품 사용의 제한으로 이어졌으며,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물사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중재 역할은 국민의 의약품 이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후, 2012년 무렵 국민의 의약품 이용과 접근의 제한을 약국 외 안전상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약사 직능의 역할이 빠진 의약품 사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기에 대안으로 국민의 심야 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 약국과 약사의 가치를 반영한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되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편의점과 약국의 타이레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사 스스로 답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 차이가 곧 약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약물 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중재라는 것을 국민과 사회제도가 이해된다면 약사 직능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시작에서 입법까지

2008년 5월 대구광역시약사회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국민의 의약품 수요에 대한 응답으로 약사의 약물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을 시범사업으로 기획하고, 약사회원의 노력으로 약사와 약국의 가치를 내보이는 대안으로써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곳의 약국을 지정하여 심야 시간의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2013년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대구에서도 공식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후 2013년 7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심야와 공휴일에 약사의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가 촉발되었으며, 그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사업의 기틀이 잡혀가고 구체적인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 참여 약국 약사와 약사 사회의 헌신으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마침내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6개월간 약 17억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는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 회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러한 쾌거에 힘입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예산의 지원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52개 약국,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서 9개 약국이 매일 3시간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운영되었다. 곧이어 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12개월간 27억 규모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통과되어 2023년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제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발전에 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전국 공공심야약국 운영현황

2012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개 약국으로 시작한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 발전하여 현재 73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32개 약국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공공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9개가 운영 중이다.

표 1. 지자체·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현황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시도	자치구 수	약국 수	시도	자치구 수	약국 수
부산	7	8	서울	23	33
대전	1	2	부산	4	4
울산	1	1	대구	2	3
경기	9	15	인천	8	27
강원	4	5	광주	5	5
충북	3	4	대전	2	2
충남	5	6	울산	1	1
전북	8	11	경기	19	34
경북	4	6	충남	1	3
경남	1	1	전남	8	8
-	-	-	경남	4	5
-	-	-	제주	2	7
합계	43	59	합계	79	132

공공심야약국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편차라는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지원으로 지역 편차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고 여겨진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과제

성공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서는 입지와 시설의 편차가 큰 약국 환경에서 표준화된 약물검토 및 중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와 약국과 약사 역할에 대한 약물 이용자와 정부의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약사의 역할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대할 때마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차이가 가지는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정은 곧 약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에 사회와 제도의 변화 속에서 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인 약사 모두가 약물검토 및 중재 역할이 약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가치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약사 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이 약사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사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과 정부도 정체성과 당위성으로 이를 인정해야 제도의 틀 안에서 약사의 역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행하는 약물검토와 중재 역할이 약사의 정체성으로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과 그렇지 않은 비도심 지역의 인구 편차가 크다. 지역의 인구 차이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여러 지원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및 운영방안을 표준화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서비스는 꾸준히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봉사와 열정만으로 국가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며,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 보상 기준의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보상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운영방안과 지역에 따른 보상지원을 마련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약물 검토와 중재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의미와 약사 직능의 가치

대한약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약사 직능의 가치를 높이는 결정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시대와 과학·기술의 발달을 수용해서 약사 직능에도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와 갈등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의 약물 이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변화에서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약국에서 제공한 약사 서비스의 경험이 약사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약사의 약물 검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험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보건의료산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주장하고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약사 고유의 직능을 침해당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약사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스스로 인지함으로써 약사의 약물 검토와 중재 역할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며, 약사가 맞이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약사 직능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축적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약사 Point

-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처방전 조제 및 셀프케어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약사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취약 시간대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 공공심야약국에서 시행되는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사용 검토 및 중재서비스는 안전한 약물사용 뿐만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약사는 약물사용 검토를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약물 선택을 돕고, 잠재적으로 또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약물관련문제(DRP)를 예방할 수 있다.
- 성공적인 공공심야약국 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모듈 개발 및 지역 편차를 고려한 실제적인 운영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공공심야약국 운영 매뉴얼(대한약사회) 등

본 문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약학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문서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문서 내용의 도용·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마케팅 목적 활용 금지, 내용 변경 금지, 출처 표시).
